



갤럭시워치



애플워치



어메이즈핏

‘손목 전쟁’ 스마트워치 당신의 선택은

삼성전자·애플 주도 성장 지속 내년 구글·메타 등도 출시 계획 사용률 19%, 최근 3년새 급증

‘손목 전쟁’이 불붙었다. ‘스마트 워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IT 기업들이 스마트워치 개발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기존 애플·삼성전자와 어메이즈핏, 화웨이 등에 이어 구글, 메타(전 페이스북) 등도 출시표를 던지면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스마트워치는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범용 운영체제(OS)를 갖추고 스마트폰과 연동돼 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가리킨다. 지난 2010년 소니 에릭슨의 ‘라이브루’를 시작으로 삼성 기어(2013), 화웨이 워치(2015), 애플 워치(2016) 등 제품이 잇따라 출시돼 왔다. 올해도 8월 갤럭시워치4, 10월 애플워치7 등이 잇따라 출시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스마트워치 사용률은 최근 3

년새 급증하고 있다. 2015년 8월 당시 스마트워치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지만, 2019년 11%, 2020년 12%로 뛰었다. 2021년 6월에는 19%로 급증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20~30대에서는 25%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40~50대는 20% 내외, 60대 이상에서도 13%를 기록했다. 특히 애플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이들 중에서는 35%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세계 21.6%의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14.4% 점유율을 뒤를 쫓고 있다. 이어 어메이즈핏(샤오미·5.8%), 아이무(5.8%), 화웨이(5.0%) 등이 추격하고 있다. 구글은 내년 처음으로 스마트워치 시장에 도전한다. 미국 ‘더 버지’ 등 IT 매체들은 최근 구글이 자체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매체는 구글의 스마트워치가 프로젝트 ‘로한(Rohan)’을 통해 개발되고 있었으며, 구글 픽셀 하드웨어 그룹이 맡았다고 전했다. 구글은 베젤 없는 원형 시계로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에 설치된 ‘웨어(Wear) OS’를 사용할 것이

라 내다봤다. 구글은 지난 2014년부터 웨어 OS를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에 제공해 왔으나 스마트워치 기기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다. 메타 또한 스마트워치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매체들은 지난 10월 메타가 이르면 내년 첫 스마트워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메타는 애플워치와 같은 사각형 시계이며, 전면 하단에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는 화상회의 등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다. 매체들은 소프트웨어 내부 코드를 분석한 결과 시계 이름이 ‘밀라노’로 명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자 업체인 BYD(비야디)는 이달 중으로 자체 스마트워치를 출시할 계획이다. BYD는 차량뿐 아니라 샤오미, 화웨이, 오포 등의 스마트폰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BYD의 스마트워치는 금속 베젤이 있는 원형 시계로 화웨이의 워치GT와 유사한 디자인을 갖췄다. 기존 스마트워치들이 건강·피트니스에 집중했다면, BYD는 차량 이용에 무게를 뒀다. 스마트워치가 기존 차기를 대체해 차량 점등, 잠금, 창문 열리기·내리기, 트렁크(테일게이트) 열기 등 기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삼성 갤럭시S22 100만원 넘을 듯

반도체 대란 장기화...스마트폰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2년 연속으로 가격이 인하됐던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도 내년에는 최소 100만원대로 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GSM아레나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외신매체들에 따르면 내년엔 나올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의 가격이 전작인 갤럭시S21보다 약 100달러(약 12만원)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가격은 지역과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 기본형 S22가 100만원대로 정해지고, S22까지 내장될 최고급 모델 S22 울트라는 16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올해 선보인 갤럭시S21은 기본형이 99만9900원이었고, S21 울트라 최고가 모델이 159만9400원이었다. 갤럭시S 시리즈 5G 모델 신작의 가격은 2019년 선보인 갤럭시S10 5G 139만7000원에 이어 2020년 갤럭시S20 124만8500원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이번엔 3년 만에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것이다. 올해 갤럭시S21은 최저 99만원대로 두 자릿수를 찍었으나, 내년 S22의 가격은 다시 세 자릿수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결과다. /연합뉴스

미디어텍이 지난달 출시한 플래그십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디멘시티9000’은 가격이 이전 모델의 약 2배로 뛰었다. 이 회사는 3분기 기준 세계 AP 시장 1위 업체로,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비보 등에 AP를 공급한다. 2위 업체 퀄컴의 차세대 AP ‘스냅드래곤8’은 ‘디멘시티9000’보다도 더 비싸게 출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미디어텍은 4G와 5G 모델 칩, 와이파이가 칩 등 부품 가격을 5%에서 최대 20%까지 올렸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도 터치센서를 비롯한 부품값을 올리는 등 대다수 반도체 부품사들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TSMC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하반기 반도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내년에는 칩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5G 주파수 대역, 통신사업자에 추가 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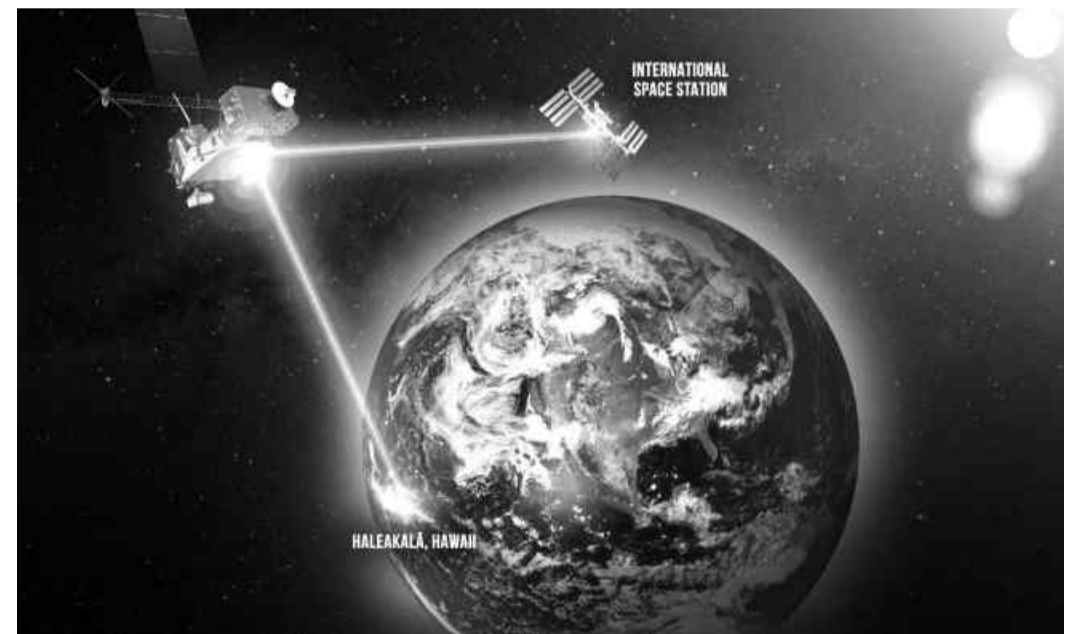
과기부 “서비스 품질 개선, 전자자원 이용 효율성 등 긍정 효과”

정부가 5G 주파수 대역을 통신 사업자에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GHz 대역 20MHz(3.40~3.42GHz)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과 전자자원 이용 효율성,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해당 주파수 대역)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파수 할당 방식과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연구반을 통한 논의를 거쳐 정해지 예정이다. 앞서 LGU+는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위해 품질 개선이 필요하며 과기정통부에 해당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주파수 대역은 LGU+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3.42~3.5GHz 대역과 인접해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LGU+에만 할당할 수 없고,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 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한 적이 없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LGU+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일정과 절차에 맞춰 참여를 준비할 것”이라며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을 경우 투자확대를 통해 ‘인빌딩’ 등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3G와 4G(LTE) 등 1.8~2.6GHz 대역 195MHz 폭 주파수도 재할당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3G 2.1GHz 대역 10MHz 폭·LTE 1.8GHz 대역 35MHz 폭·LTE 2.1GHz 대역 30MHz를, KT는 3G 2.1GHz 대역 10MHz 폭과 LTE 2.1GHz 대역 30MHz 폭을, LG유플러스는 LTE 2.1GHz 대역 40MHz 폭과 LTE 2.6GHz 대역 40MHz 폭을 재할당받았다. 해당 대역 주파수 이용 기간은 5년 후인 2026년 12월까지다. /연합뉴스

우주 광통신 시대...레이저통신중계 위성 발사

우주정거장 자료 초당 1.2기가비트 지상 전송



ISS서 자료를 받아 지상 기지국으로 중계하는 LCRD 개념도. <NASA 제공>

미국이 무선 주파수 신호에 의존해 온 우주 통신을 초고속 레이저 광통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7일 오후 6시 4분(이하 한국시간·현지시간 오전 4시 4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아틀라스 5호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 국방부의 우주시험프로그램 6차 위성(STPSat 6)에 ‘레이저통신중계 위성장치’(LCRD)를 장착해 보낸다. LCRD는 STPSat 6가 적도 3만6000km 상공의 정지 궤도에 자리를 잡으면 지상 기지국과 자료를 주고받는 것으로 임무를 시작한다. LCRD 지상 기지국은 우주 광통신에 이용되는 근적외선 레이저가 두꺼운 구름이나 난기류에 취약해 구름의 영향을 덜 받고 상대적으로 맑은 날씨가 많은 하와이 할레아칼라와 캘리포니아 테이볼

마운틴 등 고지대 두 곳에 마련됐다. 이곳에는 무선 주파수 신호를 잡아내는 대형 접시안테나 대신 구경 1m짜리 광학망원경이 설치됐다. LCRD는 ISS에 광통신 터미널이 설치되면 초당 1.2기가비트도 대용량 자료를 받아 지상 기지국으로 중계하는 실험에 나서게 된다. 지난 2013년 달 궤도를 도는 우주선에서 레이저 광통신을 이용해 지구로 직접 자료를 전송할 때 선보였던 초당 622메가비트의 두 배에 달한다. LCRD는 2년에 걸쳐 장기간 레이저 통신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NASA는 레이저 광통신 체계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할 때보다 자료 전송 속도가 10~100배 빨라지고, 우주선과 위성의 통신장비 크기와 무게를 줄여 더 많은 과학 장비를 탑재하거나 동력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연합뉴스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형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
요양

중풍
재활

수술후
재활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질화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곤항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신안동 2-3) 062) 720-2000

의료관광의원회 협의회 제190816-총-38891호